

자동차산업

판매증가/재고감소/인센티브축소 흐름 지속

● **자동차/부품/타이어**

Analyst **김준성**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현대차 6월 인센티브 \$2,730 (-6%, 이하 YoY)

지속적 감소세 유지 (지난 10개월 중 9개월 YoY 감소) 중이다. 지난 9월 신차가 출시된 싼타페의 해당 평균 인센티브가 \$1,939 감소하며, 전체 인센티브 하락을 견인했다. 싼타페 해당 평균 인센티브는 \$1,980으로 전년동월 \$3,919 대비 -49% 감소했다.

Segment 인센티브: Sedan \$2,731 (+5%), SUV \$2,483 (-22%)

기아차 6월 인센티브 \$3,541 (-10%)

9개월 연속 YoY 감소를 기록했다. 타이트한 재고 관리가 지속되며, Sedan/SUV 모두 인센티브 감소 실현했다.

Segment 인센티브: Sedan \$3,236 (-12%), SUV \$4,032 (-8%)

전체 산업 해당 평균 인센티브 \$3,826 (+1% YoY)

일본/ 미국업체들의 인센티브 확대가 산업평균 인센티브를 소폭 상승시켰다. Segment별로는 공급조절이 이루어진 Sedan은 인센티브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(\$3,167, -12%), 신차 투입이 집중됐던 SUV/Pick-up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(\$4,110, +6%).

주요 브랜드: Toyota +7%, Honda +9%, Nissan -4%, GM -1%, Ford +3%, FCA +13%, VW +2%

현대차/기아차 판매 증가, 재고 감소, 인센티브 하락의 영업 선순환 흐름 지속 중이며, 일본업체의 판매 감소와 인센티브 증가 흐름과 대조적이다.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